



유전성 탈모 진단과 치료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에 피부과 정진욱 원장

# 턱수염·가슴 털로도 모발이식 수술 가능

음주·흡연·기름진 음식 피하고  
탈모 의심되면 진료부터 받아야  
치료시기 놓치지 않는 게 중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결혼식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구이다.

머리카락의 색과 풍성함은 그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며, 검고 풍성한 모발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가 멀지않은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탈모인구는 1000만을 넘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셈이니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모의 유형=가장 흔한 탈모증은 유전성 탈모증이며, 대머리 탈모증이라고도 한다. 유전성 탈모증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형 탈모증과 여성형 탈모증으로 구분된다.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굵었던 머리카락이 꾸준히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처음에는 단지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 느낌만 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유전성 탈모증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멈추거나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탈모로 고민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 탈모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 하나이다. 때를 놓치면 치료 자체도 어려워 큰 후회를 하게 된다. 탈모증이 의심되면 최우선적으로 가까운 피부과 병원이거나 탈모 전문병원을 찾아서 진료부터 받는 것이 현명하다.

◇유전성 탈모증의진단과 치료=유전성 탈모증의 자가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탈모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먼저 두피에 기름진 비듬이나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지루성 피부염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탈모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있는 지 점검해보는 방법이다. 후두부 모발과 가늘어져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의 모발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머리 중앙에서 가운데 가르마를 타보는 방법이다. 가르마 부위가 넓어지거나 두피의 노출이 더 많아졌다면 탈모증으로 인해 모발이 감소한 증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마의 넓이를 과거와 현재의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이마가 넓어지는 것은 유전성 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유전성 탈모증의 치료는 원인이 잘 밝혀진 까닭에 치료의 효과는 좋은 편이다. 유전성 탈모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탈모리에 남성호르몬에서 만들어지는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라는 물질이 작용해서 발생한다.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에피부과 정진욱원장이 부분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에게 탈모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는 원인 물질인 DHT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탈모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남성형 탈모증의 초기에는 바르는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이나 알파 트라디올이 사용되며, 초기와 중기에는 바르는 약물과 함께 먹는 발모제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사용되고 있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탈모증의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수술적인 처치인 자가 모발이식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머리 중앙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는 여성형 탈모증에는 주로 바르는 약물치료가 사용되고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나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여성형 탈모증에는 원인에 따라서 먹는 탈모치료제가 사용된다. 여성의 경우도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우면 모발이식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발이식=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모발이식 수술은 자신의 건강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부위에 이식해주는 시술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이식할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된다. 한 줄로 한 번에 모낭을 채취하는 절개식과 모낭을 한 뿌리씩 각각 뽑아서 채취하는 비절개식 방법이 있다.

절개식은 많은 수의 모낭을 한 번에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술시간이 짧고 시술도중 모낭의 손상이 더 적은 편이다. 비절개식은 두피에 여유가 많지 않을 때에 좋으며, 수술 시간은 다소 길지만 회복 기간이 더 짧은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탈모가 심한 경우에 한 번의 시술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절개식과 비절개식의 장점을 혼합한 혼용 모발이식수술이 시술되고 있다. 모발이식수술을 고려중인 일반인들은 자신에게 과연 어떤 시술이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시술방법의 선택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시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전문의와 직접 자세하게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과거에는 모발이식 수술을 하고 싶어도 남아 있는 머리카락이 너무 적은 경우는 모발이식 수술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턱수염이나 가슴에 있는 털을 이용해 머리에 이식하는 모발이식 수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도 모발이식수술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유전성 탈모증이 있는 경우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줄어드는 반면, 별다른 기능이 없는 수염이나 가슴 털 등 체부 털은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체모를 이용한 모발이식 수술은 이식할 모발을 별도로 제공해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탈모로 고민 중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털을 탈모부위에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발이식수술 분야의 큰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탈모증에는 음주와 흡연, 기름진 음식, 지나친 칼로리 섭취, 복부비만 등이 악화요인인 만큼 꾸준한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식약처, 43개 병원 임상시험 차등평가

## 조선대병원 최고 ‘A등급’ 받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문경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실시기관 차등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조선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피험자 보호프로그램을 기반으로 IRB 심사 위원, 연구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질 관리 활동에 힘써 왔다.

문경래 병원장은 “차등평가 A등급 획득 결과를 바탕으로 피험자 보호 프

로그램 운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 연구 수행 및 임상시험 관련 심포지엄,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연구 수행의 질, 임상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기관 차등 관리제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가 많은 병원 43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3개 등급으로 분류해 A등급은 5년에 1회, B등급은 3년에 1회, C등급은 1년에 2회 점검을 받으며, C등급은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1주년...환자 8만명 육박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인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기현)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윤택립 전남대병원장을 비롯해 내외 귀빈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개원 첫 달 1844명이었던 환자가 지난해 12월 1만명을 돌파, 누적 환자 수가 지난 1년간 8만여명에 달했다. 또한 135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병상가동률 95%, 총 수술건수 1,445건을 기록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메디칼병원과 의료연구협약을 체결했으며, 정형외과에서는 국제 고관절 수술시연(Hip Live Surgery)을 3차례 실시해 탁월한 의술을 세계 의료진에 전수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협력병원과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지역주민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의 공개 건강강좌와 건강교육을 실시했으며,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이웃에게 무료검진 등 의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이마트 헌혈 약정 체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최석환 원장)과 이마트(광주호남총괄담당 전진홍)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강당에서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약정식에서 두 기관은 지속적

인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정기적 헌혈참여 장려와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